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08



Contents



※ 2025.12.11(목) 기준(대상 기간 : 2025.12.04.~2025.12.10.)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박정 의원, 2035 NDC 실효성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2025.12.08)1
- 국회서 해양 원자력·SMR 전략 논의, 탄소중립·해양 강국 해법 모색 (2025.12.09)1
-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확대, 베란다 태양광·개인용기 포장 등 신규 항목 추가 (2025.12.10) 2
- 전북, 전국 최초 금융기관 협력 탄소중립 햇빛나눔사업 추진 (2025.12.04)2
- 울산 중구, 2025 탄소중립 경연대회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25.12.04)2
- 강릉시, 탄소중립포인트 288만원 '희망강릉365'에 지정 기탁 (2025.12.04)3
- 대전 서구 탄소중립 계획, 목표는 앞서나 실행 구조 부재 지적 (2025.12.04)3
- 노원구, 전국 지자체 최초 구청사 탄소 직접 포집시스템 시범운영 (2025.12.04)4
- 김해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평가 전국 최우수 기초지자체 선정 (2025.12.04)4
- 성남시, 탄소중립 경연대회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2025.12.04)4
- 전북자치도, 탄소흡수원·그린인프라 기반 '전북형 탄소중립' 추진 (2025.12.04)5
- 광주, 기후위기 대응 시민총회서 탄소중립 정책 제안 (2025.12.04)5
- 삼척시-강원대,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컨퍼런스 개최 예정 (2025.12.05)6
- 박승원 광명시장, ESG정원정책포럼서 탄소중립 도시전환 특강 (2025.12.05)6

■ AI 분야 7

- 행안부 내년 예산 76조9000억원 확정, AI 민주정부 구현에 1조2661억원 편성 (2025.12.04) 7
- 정부혁신 박람회 개막, AI로 보고서 작성·민원 상담까지 일하는 방식 혁신 (2025.12.04) 7
- 국회 예산 협상 결과, AI혁신펀드 전액 삭감 등 AI 예산 약 2000억원 감액 (2025.12.04) ·8
- 충북도, AI·메타버스 기반 산업안전 실증 3년 성과 발표 (2025.12.04)8
- 광주시, 역대 최대 국비 3조9497억원 확보로 AI 실증도시 도약 기반 마련 (2025.12.04) ...9
- 시흥시, KTR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기공으로 AI·바이오 융합 생태계 본격화 (2025.12.04) 9
- 강원 AI 기획비 10억원 신규 편성, 1조원 규모 프로젝트 마중물 기대 (2025.12.04) ...10
- 경기도 생성형AI 창업경진대회, AI 해양 쓰레기 수거 서비스 '섬루션' 최우수상 (2025.12.04) 10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1

■ 탄소중립 분야 11

- 한국임업진흥원,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자원순환·탄소중립 ESG 가치 확산 (2025.12.04) 11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AI 시대 데이터센터 탄소중립 방향과 과제 세미나 개최 (2025.12.04) 11
- 당진시농촌지도자회, 농업농촌 탄소중립 기술실천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5.12.04)12
- 경남탄소중립지원센터, 도민·공무원 대상 탄소중립 인식교육 개최 (2025.12.04)12
- 경남탄소중립지원센터-연세대, 기후적응 리빙랩 연구 협력 협약 체결 (2025.12.05) ...13
- 인천환경공단, 생활폐기물 감량·탄소중립 캠페인 실시 (2025.12.10)13

■ AI 분야 14

- 황기연 수은 행장, 반도체 장비기업 방문하며 AI 산업 금융지원 강화 약속 (2025.12.04) 14
- 인천TP, AI 기반 바이어 발굴 지원사업으로 9만1921달러 수출 계약 성사 (2025.12.04) 14
- 안산교육지원청, AI·데이터 인재 양성 위한 다자간 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5.12.04) 15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5

■ 탄소중립 분야 15

- 로지스올-현대건설,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12.05)15
- 순천향대, 학생 주도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페스티벌 개최 (2025.12.04)16
- 수원여대, ESG 리빙랩 활성화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2025.12.04)16
- 제주대 RISE센터, 제주형 탄소중립 자립섬 구현 전략 세미나 개최 (2025.12.05)17
- 홍상표 풀꿈환경재단 이사장, 민관산학 탄소중립 협력체계 기틀 확립 (2025.12.05)17

■ AI 분야 18

-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AI 창작 페스티벌 '드림 온 페스타 인 부산' 개최 (2025.12.04)18
- ECS텔레콤-NICE, AI 기반 CCaaS 플랫폼으로 차세대 고객 경험 혁신 제시 (2025.12.04) 19
- 아이디어오션, AI 기반 기계 설계 솔루션 '메테우스'로 삼성전자·현대차 공급 (2025.12.04) 19
- 유통·패션·뷰티 업계, AI 활용한 초개인화 쇼핑 시대 본격화 (2025.12.04)20
- 와들, 오픈AI GPT-5 해커톤에서 92개 팀 제치고 1위로 글로벌 시장 도전 (2025.12.04)20
- BC카드, LG유플러스 AI 통화앱 '익시오'에 가맹점 55만곳 정보 제공 (2025.12.04) ...21
- 전북대, 노키아 코리아와 피지컬AI 협력 및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업무협약 (2025.12.04) 21

- 전남대, 오토폼과 손잡고 제조DX-AI 인재 거점센터 개소 (2025.12.04)	21
- 숭실대 AI융합연구원, 서울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양성 컨퍼런스 개최 (2025.12.04) ...	22
- 오픈AI, '코드 레드' 발령하며 구글·중국 AI 추격에 비상 경영 체제 돌입 (2025.12.04) ..	22
- AWS, 전력 40% 줄인 AI칩 '트레이니엄3' 출시로 엔비디아에 도전장 (2025.12.04) ..	23
- 오픈AI·엔비디아, 경쟁사들의 강력한 도전으로 절대 강자 지위 흔들림 (2025.12.04) ·	23
-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재가동, AI 붐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이 배경 (2025.12.04) ·	24
- AWS, AI 에이전트 '결정론적' 통제 원칙으로 기업 신뢰 확보 전략 제시 (2025.12.04) ..	24
- 미국, 한국 포함 8개국과 AI 공급망 동맹 추진으로 중국 견제 (2025.12.04)	25
- 트럼프 행정부, AI에 이어 로봇 산업 전폭 지원으로 중국과 패권 경쟁 (2025.12.04) ·	25
- 한국공학한림원·국회미래연구원, 중국 AI·반도체 기술굴기 대응 전략 포럼 개최 (2025.12.04) ·	25
- '피지컬 AI'가 열어줄 한국 제조업의 미래, 지식 공유와 흐름 고민 필요 (2025.12.04) ·	2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박정 의원, 2035 NDC 실효성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2025.12.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 개정안은 중장기 NDC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해 감축 목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하는 로드맵이 단순한 행정계획에 그치지 않고 법적·정책적 책임을 수반하도록 하자는 취지. - 박 의원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감축 비율만 규정해 이행계획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며, 목표를 높인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위해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p>□ 국회서 해양 원자력·SMR 전략 논의, 탄소중립·해양 강국 해법 모색 (2025.12.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이언주·최형두·서일준·박상웅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해양 원자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산업적 활용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탄소중립과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섬. -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해상 물류·부유식 에너지·해양 국방 분야에서 장기 운전과 높은 안전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해양 원자력이 차세대 해양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은 최근 소형 모듈형 용융염원자로(MSR)를 적용한 LNG 운반선의 기본승인을 세계 최초로 획득. - 황정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SMR 기술 도약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하며 지금이 우리나라가 해양 원자력 분야에서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언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확대, 베란다 태양광·개인용기 포장 등 신규 항목 추가 (2025.12.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탄소중립 포인트 예산을 올해보다 13.1% 늘어난 181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실천항목별 탄소 감축량·일상화 수준·실천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단가를 조정하기로 함. - 탄소감축량이 높고 실천 난이도가 높은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100원에서 300원으로, 공유자전거 이용은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하는 반면, 탄소감축량이 낮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전자영수증 발급 단가는 100원에서 10원으로 하향 조정. - 내년 1월부터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3000원/회),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1만원/회),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100원/건), 개인 장바구니 이용(50원/회), 개인용기 식품포장(500원/회) 등 5개 신규 항목 시행 예정.
지자체	<p>□ 전북, 전국 최초 금융기관 협력 탄소중립 햇빛나눔사업 추진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금융기관과 협력해 도민이 절감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으로 탄소포인트를 기부하면 금융기관이 동일 금액을 후원해 복지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탄소중립 햇빛나눔' 사업을 본격 추진. - 전북은행과 농협은행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탄소포인트 기부금 전용계좌에 적립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매칭 후원하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9개 복지시설에 태양광 설비 설치 예정. - 전북자치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11만 7286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고, 기부 전환 감축량은 6983톤, 누적 기부금은 약 3억 원을 기록하며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 기부금 8억 원 돌파. <p>□ 울산 중구, 2025 탄소중립 경연대회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중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주관으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25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는 '탄소는 다운(DOWN), 생태는 업(UP)! 우리가 함께 그린(Green) 울산 중구'라는 주제로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황방산 두꺼비 봉사단을 조직해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 - 6월에는 학교·공공기관·환경단체 관계자, 공무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으로 탄소중립 구민실천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탄소중립 교육·체험·홍보 활동을 추진하며 탄소중립 문화 확산 도모.
	<p>□ 강릉시, 탄소중립포인트 288만원 '희망강릉365'에 지정 기탁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시는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 중 기부에 참여한 185가구의 288만250원을 '희망강릉365'에 지정 기탁했으며, 2025년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는 8,345가구로 전년 대비 883가구(11.8%) 증가. - 지난해 처음 탄소중립포인트 기부제도를 활성화한 결과, 올해 기부 가구는 전년 대비 63가구 증가한 185가구이며, 기부금도 전년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시민참여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 달성. - 시는 매년 참여 가구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신규 가입자와 기존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
	<p>□ 대전 서구 탄소중립 계획, 목표는 앞서나 실행 구조 부재 지적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지연 의원이 대전시 서구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행정의 책임 흐름부터 현실 점검까지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하며, 1조8000억원 투입 계획에도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부서별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 - 서구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는 건물과 도로수송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해당 부문을 관리해야 할 부서 간 역할이 분산돼 있고, 감축 로드맵을 실행할 조직 간 연결 구조도 미흡하여 부서 단위의 작은 사업을 나열해 놓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 - 최 의원은 정책 라인 전체를 연결하는 조직 간 협업 체계 구축,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마련, 생활권 중심 소통 구조 정립, 세대별 행동 변화 프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그랩 설계 등 책임 구조 재정비를 촉구.</p>
	<p>□ 노원구, 전국 지자체 최초 구청사 탄소 직접 포집시스템 시범운영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노원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청사 보일러에 '탄소 직접 포집시스템'을 설치해 시범운영에 돌입했으며, 이번 사업은 2025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혁신 기술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주)라이셀, 서울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 이번에 설치되는 탄소포집설비(Solid-C)는 보일러의 배출가스를 포집하기 위해 배관 연통에 직접 연결되며,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90% 이상을 포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달성 시 약 11.1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가능. - 수도권 유일의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노원구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수송·에너지·시민참여 등 각 분야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본격 착수한 '100만 그루 나무 심기'도 탄소 흡수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
	<p>□ 김해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평가 전국 최우수 기초지자체 선정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으며, 2022년부터 4년 연속 우수 이상에 선정돼 전국 최고 수준의 탄소중립정책 역량 인정. -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탄소 중립 실천을 시민 생활 속으로 더욱 확산시키고자 오는 31일까지 '기후지킴이 포인트'를 시범 운영하며, 이메일 지우기와 걷기, 공영자전거 이용 등 기본 활동은 물론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등 김해형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 제도 시행. - 김해시는 산업용 상수도 요금 체계도 개편하여 현재 단일요금으로 운영 중인 산업용 상수도 요금을 3단계 누진제로 전환하고, 2자녀이상 다자녀 세대, 심한 장애인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등으로 상수도 복지 감면대상 확대.
	<p>□ 성남시, 탄소중립 경연대회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성남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5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장관상을 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상했으며, 이번 경연대회는 탄소중립에 기여한 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기업 등을 선정해 그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시는 28년간 방치됐던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와 주변 탄천을 연결한 녹지공원 '성남물빛정원' 조성, 유입펌프동 건축물을 뮤직홀로 리모델링한 것과 자원순환가게 운영, 탄소중립 포인트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등 시민 참여 기반의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사업을 소개. - 시는 내년에 시민 대상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 탄소중립 리빙랩,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 탄소중립 교육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
	<p>□ 전북자치도, 탄소흡수원·그린인프라 기반 '전북형 탄소중립' 추진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제17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하여 도내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 방안과 그린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한 전북형 모델 구축 모색. - 천정운 전북연구원 팀장은 도내 흡수원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관리 체계 수립과 주민 참여 기반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김상욱 원광대 교수는 생태관광 및 자연자본과 연계한 그린인프라 적용 전략을 제안하며 전북형 모델의 방향성 구체화. - 종합 토론에서는 흡수원 확충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 여건 개선, 현장 전문 인력 양성, 지자체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 당면 과제를 점검하며 도와 시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 방안 논의.
	<p>□ 광주, 기후위기 대응 시민총회서 탄소중립 정책 제안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빛고을 기후위기 대응 시민총회에서 시민들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듣고 탄소중립 정책을 논의. - 시민들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환승대기시간 연장과 환경교육 의무화 조례 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정 등 생활 속 정책 마련을 광주시에 건의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시민총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향후 광주시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p>□ 삼척시-강원대,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컨퍼런스 개최 예정 (2025.12.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시와 강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2025 삼척 탄소중립 녹색성장 컨퍼런스'가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쓸비치 삼척에서 개최되며, '지식공유, 성과확산, 그리고 지학협력'을 주제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 행사 첫날에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강원·삼척의 미래 에너지 산업 정책을 공유하고, 폐석탄광 부지 활용 및 액체수소 등 주요 지학협력 사업과제를 논의. - 이어지는 둘째 날에는 광물자원을 활용한 CCU 신산업 생태계와 시멘트 사업장 ESG 경영 등 지역 특화 환경 대응 방안을 다루며, 연구과제 성과발표와 시상식으로 행사 마무리 예정.
	<p>□ 박승원 광명시장, ESG정원정책포럼서 탄소중립 도시전환 특강 (2025.12.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승원 광명시장이 제주도 켄싱턴 리조트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ESG정원정책 포럼-공무원 혁신 리더십 과정'에 참석해 '탄소중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전환'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 - 박 시장은 전국 지방정부 최초 기후에너지과 신설, 수도권 최초 기후에너지센터 개소 등 탄소중립 정책 기반 마련부터 1.5℃ 기후의병,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ESG 액션팀, 주민자치회의 탄소중립 활동, 광명자치대학의 탄소중립학과 운영 등 광명형 시민참여 기반 탄소중립 정책 사례 소개. - 박 시장은 지금 산업계의 부담 등을 이유로 탄소중립을 적당히 추진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행안부 내년 예산 76조9000억원 확정, AI 민주정부 구현에 1조2661억원 편성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76조905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올해 본예산 대비 4조8216억원(+6.7%)이 증가한 규모로 정부는 내년을 AI 기반 행정, 지역 균형 성장, 국민 안전 강화를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 - AI 민주정부 분야 예산 1조2661억원이 편성되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중복투자 없이 행정업무에 AI를 적용하고, 민간 기업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사업에도 신규 투자. - 국민 안전 분야 예산은 2조5351억원 규모로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드론 등 최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체계 구축 예산이 포함되었으며,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에 124억원 책정.
중앙부처	<p>☐ 정부혁신 박람회 개막, AI로 보고서 작성·민원 상담까지 일하는 방식 혁신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 오스코에서 개막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AI 행정지원 챗봇을 통해 보고서 초안을 5초도 안 돼 완성하는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AI로 인해 달라지고 있음을 시연했으며, 중앙부처 26곳, 지방정부 20곳, 공공기관 43곳, 민간기업 68곳이 참여. -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기술관에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미래형 클로바 케어콜'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가상 인물(AI)이 다문화 자녀를 돕는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등 동사무소에서 일차적으로 민원에 응대하는 AI 서비스 개발 단계 공개. - 육군교육사령부는 AI로 총성을 분석해 적의 위치와 화기 종류를 즉각 분석하는 시스템을 전시했으며, 해양경찰청의 VR 활용 해상 범죄 단속 훈련 프로그램과 울산시의 AI 드론 기반 구조 시스템 등도 전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국회 예산 협상 결과, AI혁신펀드 전액 삭감 등 AI 예산 약 2000억원 감액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도 예산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예산은 약 92억원 증액된 반면, AI 관련 예산은 약 2000억원이 정부안보다 감액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혁신펀드 1000억원은 전액 삭감. - 중기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예산은 2800억원 감액돼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모태펀드(350억원 삭감)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모태펀드(200억원 삭감)도 감액 대상에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은 원안보다 345억원 삭감됐고, 산업통상부 소관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연구개발 예산도 185억원 삭감되는 등 AI 예산은 당초 10조1000억원에서 9조원대로 축소.
지자체	<p>□ 충북도, AI·메타버스 기반 산업안전 실증 3년 성과 발표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가 '2025년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사업 성과 교류회'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35억원을 투입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주관기관으로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추진한 3년간의 산업안전 실증 성과 발표. - 중소기업 20개사에는 80개 위험구역을 구축하고, 중견기업 3개사에는 정보전략 기반의 맞춤형 AI 솔루션 실증을 진행했으며, 산업재해를 예측·식별하는 AI 기반 재해분석모델을 15종으로 확장해 제조업 중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 마련. - 2025년 실증 사업 종료 후 중견기업은 기업별 운영 정책에 맞는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은 구독형 모델을 통해 희망 기업이 해당 솔루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산업안전 생태계 확산 추진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광주시, 역대 최대 국비 3조9497억원 확보로 AI 실증도시 도약 기반 마련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 3조9497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16.6% 증가한 수치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8.1%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 - AI 분야에서는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6억원, 규제프리 광주 AI실증도시 5억원, AX 실증밸리 조성 296억원,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 192억원, GIST AI 영재학교 설립 31.4억원 등이 반영돼 광주가 AI 실증 및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기반 마련. - 미래차 분야에서도 AI 기반 자율주행 실증 도시 조성 617억원, 미래모빌리티 인지부품 기능안전 시험 지원 24억원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 지원 예산이 확보되어 광주가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도를 위한 토대 구축.
	<p>□ 시흥시, KTR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기공으로 AI·바이오 융합 생태계 본격화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에서 열리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흥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기공식'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인 AI·바이오 융합 생태계 조성 산업기반 구축사업의 첫 단추를 끼움. - KTR은 1250억원을 들여 국가공인 바이오 인증시설과 유전자치료제 연구 플랫폼을 갖춘 연면적 1만5980㎡ 규모의 대규모 연구소를 건립하며, 2029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GMP 기준을 충족하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지원센터와 기술지원센터 등이 입주 예정. - KTR은 연구소 건립으로 약 664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간 85억원 규모의 기업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약 100명의 전문 연구인력이 상주해 유전자치료제와 첨단 바이오 연구의 핵심 거점 역할 수행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강원 AI 기획비 10억원 신규 편성, 1조원 규모 프로젝트 마중물 기대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안에서 한 톨도 반영되지 않았던 강원지역 AI 관련 기획 예산이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강원권 AX 대전환 마스터플랜 기획비' 10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실제 사업은 1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 - 버티컬AI 기반 의료융합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35억원과 강원 의료 AX산업 실증 허브 조성 20억원 등이 반영돼 의료·AI 융합 산업의 중심지로의 도약이 가능해졌으며,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공모사업 지원 140억원도 포함.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0억원,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 성능평가센터 구축 30억원, 의료반도체 실증플랫폼 구축 10억원, AI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사업화 기반 구축 10억원 등 AI·의료기기·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524억6600만원 반영.
	<p>□ 경기도 생성형AI 창업경진대회, AI 해양 쓰레기 수거 서비스 '섬루션' 최우수상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해양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개발한 경기도 친환경 해양 스타트업 '섬루션'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최우수상 수상. - 섬루션은 매년 18만톤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 문제에 주목하여 버섯 재배 후 남은 폐배지를 활용한 생분해성 친환경 부표를 개발하고, GPS 센서와 AI 기술, 해양환경공단·국립해양조사원·지자체 연안관리팀의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해양 쓰레기 대응법 구축. - 부표는 실시간 위치·표류 데이터를 전송하고 해양 쓰레기 밀집 구역을 분석해 지자체와 해양 작업자가 쓰레기 수거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회수한 부표는 생분해 비료나 사료로 재가공 가능해 순환경제 모델로 확장 가능성 평가.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div> <div> <div>□</div> <div> 한국임업진흥원,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자원순환·탄소중립 ESG 가치 확산 (2025.12.04) </div>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임업진흥원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유한킴벌리·LG전자·현대건설과 함께 '2025 산림분야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며 산림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다른 산업에 긍정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전개. - 유한킴벌리는 메타어스랩과 AI 기반 위성 자료를 활용한 산림복원 탄소저장 산출 기술 PoC를, LG전자는 다자요와 산림 환경 내 스마트 코티지를 활용한 탄소 중립, RE100 실증을, 현대건설은 레이닷·세이브트리와 스마트 조경·수목 관리용 기기 개발 및 통합 솔루션 시험 모델 개발을 각각 진행. -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기업들의 성과를 널리 보급하고 온실가스 레드플러스와 같은 세계 규모의 산림 사업에도 기여하며, 산림 데이터의 연구와 사업화를 가속화할 계획. </div> </div>
	<div> <div> <div>□</div> <div> 국가녹색기술연구소, AI 시대 데이터센터 탄소중립 방향과 과제 세미나 개최 (2025.12.04) </div>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공동으로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탄소 중립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여 생성형 AI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 급증 문제와 그린데이터센터 전환 논의 진행. - 임종서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데이터정보센터장은 글로벌 AI 산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최대 1700TWh로 4배 이상 전력 소비 증가 전망을 제시하며, 에너지 효율 극대화, 재생에너지 활용, 폐열 재활용을 목표로 하는 그린데이터센터 구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 </div> </div>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토론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에너지 집약적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관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냉각기술 혁신, 입지·전력계통 연계, 기업 유인정책 등 추진 필요 과제 제시.
지방기관	<p>□ 당진시농촌지도자회, 농업농촌 탄소중립 기술실천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한국농촌지도자당진시연합회가 2025년 농업농촌 탄소중립 기술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발표했으며, 건전육묘 실천, 농약 빈 병 처리, 전 읍면 교육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이 우수한 평가 획득. - 센터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3월부터 친환경 농자재 아인산염 자가 제조 실습 교육을 추진하여 못자리 육묘 시 뜸묘 예방, 감자·고추 등 역병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순회 교육을 진행하며 농가의 비용 절감에 기여. - 12개 읍면별로 총 52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당진시 영농부산물과쇄단을 구성해 상반기 150ha 농업부산물을 처리했으며,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산림 인접 지역 등 자가 파쇄가 어려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파쇄 지원 확대. <p>□ 경남탄소중립지원센터, 도민·공무원 대상 탄소중립 인식교육 개최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탄소중립지원센터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 인식교육'을 개최했으며, 100여 명이 참석하고 경남도 공식 유튜브로도 생중계. - 오형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센터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기후위기의 과학적 근거와 글로벌 대응 방향을 설명하며,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할 시 우리나라에서 창원 등 일부 해안가 지역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경고 전달. - 경남탄소중립지원센터는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앞서 교육·기업 컨설팅·정책 토론회·도민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태동 연세대학교 교수는 시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모델과 주유소 일회용 비닐장갑 활용 줄이기 등 간단한 실천 방안 소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 경남탄소중립지원센터-연세대, 기후적응 리빙랩 연구 협력 협약 체결 (2025.12.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연세대학교 기후적응 리빙랩 연구사업단과 '기후적응 리빙랩 기반 연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민 주도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 활동 활성화 추진. - 양 기관은 앞으로 3년간 기후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역량 강화,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상호 소통 강화 등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협력은 경남 지역에서 시민 참여 기반의 기후적응 리빙랩 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첫 사례. - 정판용 경남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기후위기는 지자체나 전문가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경남형 기후적응 정책과 실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워가겠다고 언급.
	<p>□ 인천환경공단, 생활폐기물 감량·탄소중립 캠페인 실시 (2025.12.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환경공단이 송도자원순환지원센터 실내스포츠시설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탄소중립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번 캠페인은 내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 - 공단은 방문객에게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와 '탄소중립 행동 전환' 안내 홍보물과 함께 폐기물 감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기념품을 제공했으며, 소비 단계에서 폐기물 줄이기, 대체용품 사용, 분리배출 확대, 탄소중립 행동 전환 등 4 단계를 중심으로 홍보 진행. -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환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자원순환 실천을 높이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맞춰 인천시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자원순환도시 실현에 힘쓰겠다고 언급.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황기연 수은 행장, 반도체 장비기업 방문하며 AI 산업 금융지원 강화 약속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기연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취임 후 첫 중소·중견 기업 방문지로 경기 평택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원익IPS를 선택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 3대 AI 강국'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약속. - 수은은 올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에 총 8조원 이상을 지원 중이며,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기업에 금융지원 시 대출한도, 금리 등 우대조건을 제공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8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계획. - 수은은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AI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AI 산업에 대한 큰 폭의 금융우대, 스타트업 투자 확대, 중소·중견기업 AI 전환 컨설팅 제공 등 전략적 금융지원 방안 마련 추진.
지방기관	<p>□ 인천TP, AI 기반 바이어 발굴 지원사업으로 9만1921달러 수출 계약 성사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AI 기반 바이어 발굴 지원사업'을 통해 9만1921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를 직접 발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시작. - 인천TP는 참여 기업 15개사에 온라인 플랫폼 기반 교육과 AI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당 30개사의 바이어를 발굴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원크린, 유화바이오 코스메틱, 휴토피아는 AI 분석을 통해 미국, 유럽, 동남아 시장의 잠재 수요를 파악하고 집중 컨설팅을 통해 판로 개척 전략 수립. -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바이어 발굴을 통해 중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진출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인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계획 발표.
	<p>□ 안산교육지원청, AI·데이터 인재 양성 위한 다자간 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교육지원청이 안산상공회의소, 한양대학교 ERICA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KT와 함께 '안산 루트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AI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인재 양성 추진. - 이번 협약은 안산시가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모에 선정된 이후 지역 중심의 직업교육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산업 연계 실습 및 취업 지원, 지속적인 학습·재교육 체계 마련 등 추진. - '안산 루트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역내 6개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지역 기업과 연계된 현장 실습을 통해 적용하고 졸업 후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지는 성장 루트를 경험하는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모델 구축.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로지스올-현대건설,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12.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지스올(LOGISALL)과 현대건설이 탄소중립 실현과 ESG 가치 제고를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 PPA 및 에너지 신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은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기업들의 RE100 달성과 PPA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사는 로지스올이 운영 중인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발전소 구축 및 발전사업 추진, 에너지 사용처 확보 및 전력 공급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현대건설은 로지스올의 발전 자산 확보를 위한 PPA 계약, 신규 에너지 사업 제안, 정책 대응 및 시장 정보 공유 등 전방위적 역할 수행 계획. - 로지스올은 2016년 광양태양광 발전소를 시작으로 태양광사업을 확장해왔으며, 2026년까지 물류센터 지붕을 활용한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확충 계획을 세우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적극 추진 중.
대학교	<p>□ 순천향대, 학생 주도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페스티벌 개최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향대학교 RISE사업단 탄소중립활성화지원센터가 교내에서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페스티벌(The Third Code)'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하며, 학생 참여형 친환경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 건축학과 학생들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조형물을 설치해 탄소저감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했고, 컨버전스디자인학과는 지속가능 디자인 제품과 UX 기반 작품을 전시하며, 다회용컵 회수기, 탄소중립 파크 부스 등도 운영돼 참여자들이 직접 탄소저감 행동 체험. - 오픈 세미나에서는 전문가,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대학 구성원 등이 참석해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논의했으며, 순천향대는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탄소중립 인재 양성과 실천 중심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 <p>□ 수원여대, ESG 리빙랩 활성화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여자대학교가 ESG 리빙랩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행사는 경기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탄소중립 현안을 해결하고 ESG 리빙랩 기반 공동 실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 - 수원여대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지역 문제 해결형 ESG 리빙랩 프로젝트, 지역민 참여 확대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산학 협력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계를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그린도시 주민실천단, 수원청년상인회,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등 12개 기관·기업과 업무협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여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ESG 리빙랩을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하며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대한 의지 표명.
	<p>□ 제주대 RISE센터, 제주형 탄소중립 자립섬 구현 전략 세미나 개최 (2025.12.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대학교 RISE센터와 2025 제주 RISE R&D 사업 'AI 기반 그린수소 전주기 혁신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는 교수진과 기업이 주관하여 'K-Hydrogen 2030 JEJU: 디지털 거버넌스와 AI 최적화를 통한 제주형 탄소중립 자립섬 구현 전략' 세미나 개최. - 하태상 그린필스(주) 대표가 'AI 시대, 그리드 테크가 여는 기후혁신', 박상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센터장이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김영훈 한국화학연구원 박사가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형 화이트 바이오 소재기술', 김도운 한국외대 교수가 '탄소중립 에너지 변환 소재의 장기 안정성'을 각각 발표. - 패널토론에서는 정책·기술·산업을 연계한 제주형 탄소중립 실현 전략과 실증·상용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기술을 접목한 제주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도내 산학연 협력 기반 강화 기대.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기타	<p>□ 홍상표 풀꿈환경재단 이사장, 민관산학 탄소중립 협력체계 기틀 확립 (2025.12.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상표 풀꿈환경재단 이사장이 충북도민대상을 수상했으며, 청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춰 강단에서 연구활동과 후학양성에 매진하며 2014년부터 풀꿈환경재단에서 주민·환경운동에 대한 지원과 민관산학 협력적 환경운동의 기반 구축. - 풀꿈환경재단은 충북도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환경교육 활성화, 청주국제에코콤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렉스와 청주새활용시민센터 위탁운영, 청주희망그린발전소·희망그린에너지센터 운영 등을 수행하며, 수익금을 교육복지장학금으로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 이사장은 413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충청도탄소중립실천협의회를 발족해 이끌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협력체계 구축과 도민실천활동 기틀을 확립했으며, 미호강맑은물시민연대 공동대표 역할로 주민참여형 하천관리와 충청도 통합물관리사업 기초 마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AI 창작 페스티벌 '드림 온 페스타 인 부산' 개최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부산 e스포츠경기장 옐로 스페이스에서 AI를 활용한 게임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창작 활동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 온 페스타 인 부산'을 성황리에 개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희망스튜디오가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주관으로 참여했으며, 스마일게이트 창업재단 오렌지플래닛 동문사 '툰스퀘어'가 'AI를 활용한 창작'을 주제로 특강 및 교육 콘텐츠 제공. - 창작 워크숍에서는 청소년들이 AI 프로그램에 기반해 가상의 게임 장면과 캐릭터를 상상하고 이미지로 완성했으며, 참가자들은 작품 공유회에서 창작물을 함께 감상하고 콘텐츠 스토리와 AI 이미지 생성 등 인상적인 작품을 선보인 팀에 투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ECS텔레콤-NICE, AI 기반 CCaaS 플랫폼으로 차세대 고객 경험 혁신 제시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컨택센터 전문기업 ECS텔레콤이 CCaaS 분야 글로벌 리더 기업 'NICE'와 함께 'AI가 주도하는 고객 경험 혁신'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람과 AI의 시너지로 구현되는 CX(고객 경험) 혁신 전략과 AI 기반 컨택센터의 실제 적용 사례 공유. - ECS텔레콤은 클릭만으로 AI 상담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운영하는 SaaS 에이전틱 AI 솔루션 'ECP-AI'를 소개하며, 기존 시나리오 기반 콜봇이 단순히 고객 의도를 분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에이전틱 AI는 사용자 목표를 인식하고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 업무를 처리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고 설명. - 마크 해링턴 NICE 인터내셔널 프리세일즈 부사장은 자동화와 생성형 AI가 상담사의 역량을 확장해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응대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책임감·공감·윤리성 같은 인간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CX 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
	<p>□ 아이디어오션, AI 기반 기계 설계 솔루션 '메테우스'로 삼성전자·현대차 공급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아이디어오션'이 사용자가 원하는 기계 장치의 기능 등을 입력하면 AI가 판단해 조건에 맞는 기계의 설계도를 내놓는 AI 기반 기계 설계 솔루션 '메테우스'를 개발하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에 초기 모델 공급. - 창업 4개월 만인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혁신상을 받았으며, 김중호 아이디어오션 대표는 설계 AI 성능을 지금의 10배 이상으로 고도화한 두 번째 버전을 내년 출시해 글로벌 AI 설계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포부 밝힘. - 스타트업 '갭텍'은 물을 활용해 공장의 배출가스를 처리하는 솔루션을 개발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공급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넷제로 챌린지X' 지원 스타트업에 선정되는 등 AI와 환경 기술 융합 스타트업들이 주목받는 추세.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유통·패션·뷰티 업계, AI 활용한 초개인화 쇼핑 시대 본격화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혁명으로 유통산업의 공식이 다시 쓰이며 현대백화점은 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를 론칭해 점포 정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하고, 신세계백화점은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S-마인드 4.0' 개발 중. - 롯데백화점은 13개 언어를, 신세계는 38개국 언어를 실시간 번역하는 AI 통역 서비스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AI 소믈리에로 와인을 추천하고 '제타' 앱으로 개인 맞춤형 장바구니 서비스 제공. - 아모레퍼시픽은 피부 톤에 맞춘 205가지 제품을, LG생활건강은 AI 기반 웨어러블 패치를 선보이는 등 뷰티업계에서 AI로 피부 분석 후 맞춤형 제품을 추천하며, 패션업계도 AI 광고 제작, 가상 피팅, 생성형 AI 추천 시스템을 운영하며 초개인화 전략 강화.
	<p>□ 와들, 오픈AI GPT-5 해커톤에서 92개 팀 제치고 1위로 글로벌 시장 도전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구매 결정을 돕는 대화형 AI 에이전트 '젠투'를 개발한 스타트업 와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오픈AI GPT-5 해커톤'에서 92개의 글로벌 경쟁팀을 제치고 우승하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음. - 와들은 지난 2024년 10월 오픈AI와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맺어 우리나라 스타트업 최초로 오픈AI의 AI 기술을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으며, 해커톤에서는 젠투 운영 데이터로 쇼핑몰 방문자의 디지털 클론을 생성하고 판매 전략을 짜주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 와들은 수상 경험을 계기로 AI로 쇼핑몰을 자동 운영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어 현재 AI 기반의 이커머스 빌더를 개발 중이며, 올해 안으로 해외 고객사 100곳 확보를 목표로 글로벌 진출에 박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BC카드, LG유플러스 AI 통화앱 '익시오'에 가맹점 55만곳 정보 제공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카드가 LG유플러스에 AI를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기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출시 예정인 LG유플러스의 익시오(ixi-O) 앱 내 신규 서비스 'AI 비서'에 자사 'eat.pl' 서비스 연동. - LG유플러스 고객이 '맛집'에 대한 정보를 AI 비서로 문의할 경우 eat.pl 서비스를 통해 전국 55만개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별·연령대별·혼잡 시간대별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익시오는 녹음 안내 멘트 없는 통화 녹음 및 요약, 온디바이스 AI 기반 보이스피싱 위험 탐지 등 기능 제공. - eat.pl은 고객이 실시간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결과를 제공하며 글로벌 AI 서비스 라이너, 한국형 AI 서비스 뒤편 등에서도 채택되는 등 주요 AI 플랫폼의 핵심 데이터 서비스로 자리매김.
대학교	<p>□ 전북대, 노키아 코리아와 피지컬AI 협력 및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업무협약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대학교가 노키아 코리아와 '피지컬AI 협력 및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피지컬AI 융합 분야 공동연구 및 융합 플랫폼 구축,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 계획. - 양 기관은 시험·분석 장비 및 연구시설 상호 활용, 지역기반 취·창업 생태계 조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등 다각적 협력을 진행하며,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글로벌 선도기업 노키아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언급. - 이번 협력은 전북대의 특성화 연구대학 전환과 AI 융합 교육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글로벌 ICT 기술역량을 지역 산업현장에 접목함으로써 산학연 협력 생태계 혁신을 촉진할 전망.
	<p>□ 전남대, 오토폼과 손잡고 제조DX-AI 인재 거점센터 개소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대가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오토폼(AutoForm)과 업무협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약을 체결하고 제조DX·AI 기반 교육·연구·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오토폼 글로벌 산업기술거점센터'를 개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대는 업무협약을 통해 오토폼 전 모듈 20개 라이선스(총 600억 원 규모)를 기증받기로 했으며, 이는 국내 대학 가운데 제공된 소프트웨어 패키지 중 최대 규모로 설계부터 생산, 품질 관리에 이르는 금속 성형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 시뮬레이션 등 실무 중심 교육 가능. - 전남대는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제조DX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 맞춤형 R&D를 지원하며, 재직자·여성 엔지니어 특화교육, AI 기반 공정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 트윈 실증 등 지역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추진 예정.
	<p>□ 송실대 AI융합연구원, 서울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양성 컨퍼런스 개최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실대학교 AI융합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 지원으로 '서울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양성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 - 행사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서울지역인재양성협의체 회의, 'AI Transformation to Enterprise Business' 주제의 AI 전문 세미나, 국제 AX 연구회(IAAX) 창립총회 및 포럼이 진행됐으며, AI 기술이 산업, 도시, 사회 전반에 미칠 변화를 폭넓게 논의. - IAAX는 송실대 AI·SW융합학과와 AI테크노융합학과가 공동 주관하는 비영리 학술·산업 협력 단체로, AI 기술이 가져올 산업 및 사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교육·표준화·국제 교류를 목표로 초대 회장에 이근우 (주)크랜베리 부사장 선출.
해외	<p>□ 오픈AI, '코드 레드' 발령하며 구글·중국 AI 추격에 비상 경영 체제 돌입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AI가 사내 '코드 레드(적색 경보)'를 발령하며 챗GPT 성능 개선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치로 헬스케어·쇼핑 AI에이전트, 광고 사업, 맞춤형 리포트 생성 서비스 '펄스' 등 신규 사업 연기. - 구글이 지난달 출시한 '제미나이3.0'이 주요 벤치마크에서 오픈AI의 'GPT-5'를 앞질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렸고, 월간활성이용자수(MAU)도 지난 7월 4억5000만명에서 10월 6억5000만명으로 급증한 반면 챗GPT의 일일활성이용자수(DAU)는 제미니3.0 공개 이후 6% 급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딥시크도 GPT-5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모델 'V3.2'를 공식 출시하며 압박을 가했으며, 미국 수학대회(AIME) 문제에서 96점을 받아 '제미니3.0 프로'의 95점을 넘어서고 국제수학올림피아드와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수준의 점수 기록.
	<p>□ AWS, 전력 40% 줄인 AI칩 '트레이니엄3' 출시로 엔비디아에 도전장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S(아마존웹서비스)가 연례 컨퍼런스 'AWS 리인벤트 2025'에서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트레이니엄3'를 출시하며 가성비를 앞세워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에 도전장. - 트레이니엄3은 전작에 비해 컴퓨팅 성능은 4배 이상 개선됐고 동일 전력 대비 처리 가능한 AI 토큰 수는 5배가 증가했으며, 엔비디아 GPU 대비 AI 모델 훈련·운영 비용을 최대 50% 절감할 수 있다고 AWS 강조. - AWS는 차기작 트레이니엄4 개발 사실도 공개하며 기존 대비 AI 연산 성능이 6배 향상되고 메모리 대역폭이 4배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엔비디아의 'NV링크 퓨전' 기술도 지원하도록 설계해 엔비디아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p>□ 오픈AI·엔비디아, 경쟁사들의 강력한 도전으로 절대 강자 지위 흔들림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시대를 연 오픈AI와 AI 반도체 최강자 엔비디아가 경쟁사들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GPT-5의 성능을 뛰어넘는 차세대 AI 모델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빅테크들은 자체 칩을 개발하며 탈엔비디아 선언. - 프랑스 AI 기업 미스트랄은 차세대 모델 '미스트랄 3'를 공개하고 HSBC와 AI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앤스로픽은 기업용 언어 모델 시장 점유율 32%로 오픈AI(25%)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경쟁 심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AWS는 자체 칩 '트레이니엄 3'를 공개했고, 구글은 TPU를 메타 등 다른 기업에 대량 판매를 추진 중이며, 오픈AI 역시 브로드컴과 함께 자체 AI 칩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AI 산업이 춘추전국 시대로 진입.
	<p>□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재가동, AI 붐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이 배경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스리마일섬 원전이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으로 '미국 원전 부활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돌아오며, 원전 소유 업체 측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와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 2027년을 목표로 1호기 재가동 결정. - AI의 폭발적 성장과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 전기차 증가 등이 겹치며 전력 수요가 치솟았고 24시간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의 가치가 다시 부각되어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부(DOE)는 원전 운영 업체 콘스텔레이션에 10억달러 연방 대출 제공 결정. - 미국은 1970년대 건설된 50년 넘은 설비라도 유지 관리 기준만 충족하면 '80년 이상 가동'을 업계 표준처럼 받아들이고 있으며, 신규 원전 건설보다 폐쇄 원전 재가동이 비용·시간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어서 원전 재가동 흐름 가속화 전망.
	<p>□ AWS, AI 에이전트 '결정론적' 통제 원칙으로 기업 신뢰 확보 전략 제시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S가 '리인벤트 2025' 현장에서 '아마존 베드록 에이전트코어'에 AI 에이전트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에이전트코어ポリシー(Policy)' 기능과 에이전트 성능을 평가하는 '에이전트코어 이밸류에이션(Evaluations)' 기능 추가 발표. - 마두 파르타사라시 AWS 에이전틱 AI 총괄 디렉터는 예를 들어 '100달러 이상의 환불은 승인하지 마라'는 정책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게이트웨이가 중간에서 정책을 확인하고 기준을 위반하면 즉시 차단하는 '결정론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 - 파르타사라시 디렉터는 2025년이 기업들이 에이전트의 가능성을 확인한 '프로토타입'의 해였다면, 2026년은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덕션' 단계로 넘어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 미국, 한국 포함 8개국과 AI 공급망 동맹 추진으로 중국 견제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한국·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UAE)·호주 등 8개국과 AI 공급망 협정을 추진하며 12일 백악관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으로, 에너지, 첨단 반도체 제조, AI 인프라, 물류 운송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협정 체결 목표. -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현재 AI 시장은 명백히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라며 중국에 대한 강압적 의존 없이 미국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정제 능력의 90% 이상 장악. -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과 일본 대미 펀드의 첫 투자처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한미 협약상 한국 기업에 수주 우선권을 주기로 돼 있어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 형성. <p>□ 트럼프 행정부, AI에 이어 로봇 산업 전폭 지원으로 중국과 패권 경쟁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이어 로봇 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잇따라 만나는 등 로봇 산업 발전을 가속하는 데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폴리티코 보도. - 트럼프 행정부는 로봇 산업 관련 행정명령을 내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 교통부도 올해 안에 로봇공학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AI에 이어 로봇 공학이 차기 주요 전선으로 부상. - 국제로봇연맹(IFR)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중국 현지공장에 설치된 산업용 로봇은 180만대로 미국의 4배에 달하며, 미국 내 로봇업계도 정부와 의회에 첨단 자동화 도입, 공급망 강화, 세제 혜택, 연방자금 지원 등 적극적인 개입 요구.
기타	<p>□ 한국공학한림원·국회미래연구원, 중국 AI·반도체 기술굴기 대응 전략 포럼 개최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학한림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중국 기술굴기 대응 전략 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p>럼’을 열고 중국의 산업기술전략 흐름과 국내 대응과제를 논의했으며, 안준모 중국기술굴기대응연구원장은 중국 정책의 정교함, 구조적 추진력,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등을 핵심 특징으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원장은 중국 기술굴기가 국내 산업의 생존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중국이 단순한 ‘반도체 추격전’을 넘어 AI 자립화와 퍼지컬 AI 분야까지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강조. - 중국은 독자 LLM 개발에 그치지 않고 AI 칩, OS, AI 클러스터 등 전주기 생태계를 직접 설계하고 있으며, AI 클러스터에 ‘국산 반도체 우선 조달’을 적용한 점도 시장 내재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되어 한국 역시 산업정책의 정교함과 생태계 강화 전략 재정비 필요성 제기.
	<p>□ '퍼지컬 AI'가 열어줄 한국 제조업의 미래, 지식 공유와 흐름 고민 필요 (2025.1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지컬 AI(Physical AI)란 센서·로봇·AI가 결합해 실제 물리 세계를 스스로 관찰하고, 배우고, 움직이는 지능형 기계를 뜻하며, 단순한 자동화 로봇이 아니라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학습해 스스로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차세대 제조 지능. -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도 “미래 제조의 중심에는 인간의 숙련이 아니라 로봇과 AI가 축적한 지식 구조가 놓일 것”이라고 말하며 지능형 로봇이 제조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 강조했으며, 장인의 손끝에서 체득한 기술이 퍼지컬 AI 시스템 속에 저장되어 재사용 가능한 제조 지식으로 활용 전망. - 좁은 시장, 작은 스케일, 빠른 인구 변화라는 제약을 가진 한국에게 퍼지컬 AI는 제조업의 규모 제약을 보완하고 기술 확산을 가속하며 새로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어떤 방식으로 지식이 축적되고 공유되고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